

# [제2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 토 론 문

### [세션 1]

최영준 | Cho Young-jun

LAB2050 이사장

Chair, LAB2050, Korea

###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위하여: 기본소득의 역할 Road to the new socio-economic regime: Role of Basic Income

코로나 19 로 인한 빠른 위기와 변화는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다. 과연 2019 년으로 돌아갈 가는 '회복'을 선택할 것인지, 미래로 가는 '초회복'을 선택할 것인지를 기로에 있다. 하지만, 2019 년에 한국사회는 행복하지 못했으며, 고착화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그리고 증가하는 불평등과 악화되는 사회적 이동성, 이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의 이슈를 가지고 있었다. 개인과 시민 그 자체의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관료제적 국가와 질주하는 시장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안정을 보장받고 있지 못했다. 특히 자유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안정은 가족의 복지 기능 저하, 노동시장의 급변, 그리고 역진적이고 선별적인 복지국가 속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음.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될 뿐 아니라 혁신활동의 토대가 되고 안정적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에 중요한 미션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소득의 역할은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경제체제에서는 조그만 꼬리였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변화하는 시대의 정신을 담아내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아이디어가 되고 있으며,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는 정책기업가로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제기와 이상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들이 공감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의문과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첫째, 기본소득을 지지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둘째, 너무 낮은 기본소득은 어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가? 셋째, 완전 기본소득과 조응하는 경제체제는 무엇인가? 넷째, 완전 기본소득까지의 정치동력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토론자는 이러한 질문들이 기본소득을 부정하거나 가능하지 않게 하는 장벽이 아닌 바람직한 기본소득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경기도의 역할을 더욱 기대한다.

The Covid-19 crisis and associated changes have opened a new policy window. Korean society is standing at a crossroads, whether it goes back to 2019 or forwards to a desirable future. As well known, 2019 was without the Covid-19, but the level of happiness was low together with many serious but embedded socio-economic problems including inequality and low fertility/rapid ageing. While an individual citizen should be the most important policy goal itself, individuals' freedom and security have been undermined under a bureaucratic state and rampant market. In particular, their livelihoods are increasingly vulnerable due to weakening family role in welfare provision, unstabilizing labor market, and regressive and residual welfare state programs. It is important to get

rid of insecurity in contemporary society, which is the foundation of democracy and can boost entrepreneurship and risk-taking behaviors as well as domestic consumption. In this context, policymakers and scholars pay attention to the role of basic income in the new socio-economic regime. The discourse of basic income used to be a little tail in the old regime, but it seems to swing the body as it captures the zeitgeist. It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ideas, in which Gyeonggi Province and Governor Lee JM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Yet, the journey is about to begin and much needs to be discussed and prepared further. I would like to introduce four very important questions and criticisms relating to basic income. First, do we have firm evidence to support basic income? Second, would the low level of basic income be able to promote freedom and security or solve any social problem? Third, what is the economic system corresponding to basic income? Fourth, how could we mobilize political resources and support to achieve fully-fledged basic income? These questions do not mean basic income is an impossible agenda but are important hurdles to overcome. I a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the role of Gyeonggi Province.